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임진강변 자전거길에서는 현무암이 질백 형태로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가 빙동처럼 바라다보인다.

[사진 경기관광공사]

민통선 자전거 투어, 연천 임진강변도 달린다

파주 이어 군남댐 인근 15km 코스
임진물새롬랜드에 대여소도 설치

민통선과 인접한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에서 자전거 투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통선 자전거 투어는 파주 지역에서만 가능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8일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임진물새롬랜드에 '비무

장지대(DMZ) 자전거투어 대여소'를 설치 했다고 밝혔다.

홍재길 경기관광공사 차장은 "최근 한탄강·임진강 일대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것을 계기로 연천 평화누리길 방문객이 늘고 DMZ 자전거 투어 요청이 잇따라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용객들은 자전거를 대여해 임진물새롬랜드에서 출발, 군남홍수조절지를 반환점

으로 되돌아오는 15km 코스를 달릴 수 있다.

이 코스는 임진강변 둑길을 따라 달리며 임진강과 주변 자연 생태를 감상할 수 있다. 쉬운 코스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하게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코스 주변 임진강변의 주상절리가 암권이다.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수직 절벽인 주상절리는 높이 40m, 길이 1.5km로 펼쳐져 있다. 코스 주변엔 경순왕릉·두루미 테마파크 공원 등 역

사·문화 명소들도 있다. 자전거 대여료는 11월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대여료는 시간당 3000원, 하루 1만 원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4일 'DMZ 자전거 투어 특별행사(평화누리길 자전거투어)'를 개최한다. 300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장비 대여료 3000원은 별도다.

진학진 기자
jeon@joongang.co.kr

29.4 X 6.4 cm

경기신문

연천군 임진물 새롬랜드에 'DMZ 자전거 대여소' 설치 운영

道, 내달 14일 자전거투어 행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연천군 임진물 새롬랜드에 'DMZ 자전거 투어 대여소'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최근 한탄·임진강 일원이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고 연천 평화누리길을 찾는 방문객들이 발길이 잣아지면서 DMZ 자전거 투어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문객들은 자전거를 대여해 임진물 새롬랜드에서 출발, 임진강변을 따라 허브릴리지 일원 북삼교를 지난 후, 군남홍수조절지를 반환점으로 되돌아오는 15km 코스를 달릴 수 있다.

특히 이 코스는 임진강변 위 둑길을 따라 달리며 임진강변의 자연생태 등 수려한 경관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쉬운 코스로 구성돼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대여소는 올해 11월까지 상시 운영된

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당 3천원, 1일 1만원의 대여료를 내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DMZ 자전거투어 특별행사(평화누리길 자전거투어)'를 오는 5월 14일 임진물새롬랜드에서 개최한다. 참가 모집기간은 5월 9일 까지이며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경기관광공사 DMZ관광사업팀(☎031-956-8310).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17.8 X 7.1 cm

